

재속 프란치스코 탐험 “하느님의 클라라: 우리 시대를 위한 영성

여름 세미나 요약 - Anna Rzewnicki, SFO, Padre Pio Fraternity, Raleigh, N.C..

“때때로, 우리는 그 무언가에 이끌려 갑니다.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펜실베이니아주 로레또시에 있는 St. Francis 대학교에서 열렸던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을 위한 10회 연례 여름 세미나 개최사에서 Loretta Schaff, OSF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수녀님께서 “우리는 그 무언가를 - 마음에서 영혼까지 그리고 다시 마음으로 - 닿도록 노력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수녀님께서 성 프란치스코와 동시대에 계셨고, 가난한 자매회나 가난의 클라라 수도회 설립자인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를 목상하면서 통찰 했던 것을 나눠주면서, 성녀께서 마치 “내가 내 자신 이었듯이, 너도 너 자신이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셨다.



Sr. Loretta (St. Francis of Philadelphia 수녀회, 음악가, 교육자, 그리고 Pacific Northwest 에 있는 Troubadours of Peace 지구 영적보조자), Fr. John Petrikovic, OFM Cap. (현 사목자, 프란치스코 영성 연구자, 아씨시 프란치스코 순례 프로그램의 음악 담당, 세미나를 위해 성녀 클라라의 생애와 유산을 우리 시대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음악, 장식 그리고 전례 준비 위원회) Joseph Lehman, TOR 신부님 (Most Sacred Heart of Jesus 관구의 관구장, 관구의 전 영적보조자), Br. Robert Herrick, OFM Cap. (음악 봉사자)



델라웨어에서부터 애리조나까지 총 11 주와 총 22 개의 형제회에서 온 50 여명의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성녀의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가족의 부귀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 즉 그리스도의 가난한 삶을 받아들인 성녀 클라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세미나의 강사들은, 프란치스코처럼 13 세기 아시시의 클라라와 그녀의 두 자매 (나중에 아그네스란 이름으로 바꾸었던 카타리나) 와 베아트리스도 이탈리아의 중세의 봉건시대에서 귀족신분으로 자랐던 삶을 설명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었다. 그 당시는 낭만주의시대로 그들의 가정과 결혼을 포함하여, 기사도적인 삶의 규칙이 있었던 시대였다.

그들은, 시인이며 로마와 이탈리아의 몬테 가르 가노로 순례를 하였을 뿐 아니라, Holy Land 성지까지 위험한 순례를 강행 하였던 깊은 신심의 어머니 오르톨라나로 부터 신앙을 배울 수 있었다.

그 당시는 급변하는 불안한 시대이었다. 클라라가 6 세부터 12 세까지 어머니와 자매들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1205 년 아씨시가 시민 협정을 체결 될 때까지 페루지아에서 망명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클라라가 17 세가 되었을 때,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 불이 붙여졌다”. 그녀는 큰 은총을 받았고, 그녀의 삶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1212 년 주님 수난 성지주일에 가족과 귀족의 삶을 버리고 프란치스코를 따라갔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수도자들의 초라한 튜닉을 줘서 입도록 하였다. 바스티아 인근에 있는 베네딕도회 수녀원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녀의 두 자매도 합류하였다.

당시는 가부장적인 제도로, 가족의 딸들이 결혼하여 귀족의 삶을 영위 하기를 원했기에 이 사실을 안 삼촌 모날드는 이에 분노하여 장정을 무장 시켜 데려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클라라는 Panzo 의 Sant'Angelo 베네딕도 수도원으로 옮겨 잠시 거주하다가,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이 그녀의 거취를 준비한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 성 프란치스코가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계시를 받은 곳 - 옮겼다. 다른 여인들과 그녀의 어머니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그곳에 와서 함께 수도 생활을 하였다.

클라라는 이 성 다미아노성당에서 50 여 명의 여인들이 동참하면서 커진 공동체를 위하여 생활양식을 작성하였다. 보호자로서 남아 봉사하고자 했기에 수녀원장의 지위를 받기를 꺼렸던 클라라는 이를 수락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바라보기, 숙고와 음미 즉 관상에 관한 그리고 단식을 하고 맨발로 다니고 낡은 옷을 입고 지푸라기 돛자리에서 자도록 하는 엄격한 생활양식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가난한 자매들의 수도회가 탄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클라라의 가난을 이상으로 추구하던 프라하의 아그네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알 수 있듯이, 클라라의 영향은 그녀의 공동체를 넘어 멀리까지 미칠 만큼 지대했었다. “클라라가 아그네스에서 말한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한다.”라고 로레타 수녀님은 말씀하셨다.

아그네스에게 보낸 그 네 개의 편지에서, 클라라는 가난을 선택한 아그네스를 칭송하였다. 그리고 아그네스에게 영적 지도를 하는 듯 하였다.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기를 권하였고, 성 다미아노성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고,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얼굴을 단장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생활 양식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클라라는 가난한 자매들의 수도회의 자매들이 가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황으로부터 허락을 받기위해 무척 노력을 하였다고 요한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프란치스코처럼, 그녀도 동료들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이방인처럼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녀의 가난 특권을 유지하고자 고심했고, 다른 유럽의 수도원들처럼 삶을 안전하게 해 주는 토지와 재산을 받지 않았다. 클라라는 안전하게 보장받기보다는 하느님의 돌보심에 전적으로 신뢰를 하였다.

클라라의 회칙은 그녀가 60 세에 운명하기 이틀 전에야 겨우 교황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선종 후 2 년 후 인 1255 년에 시성 되었다.

요한 신부님께서 “ 13 세기의 성녀 클라라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녀가 행한 하나하나를 걸음으로 흉내만 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안에서 은총에 응답하고 일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시다.”라고 말씀하셨다.

신부님께서서는 1280 년도에 클라라의 삶을 그린 성녀 클라라 휘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서 인류 안에서 인류를 통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상세히 보여줄 수 있는 각자의 삶의 휘장을 만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부님께서서는 클라라와 프란치스코의 사도적 삶의 이상은, 예수님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면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설명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는데, 함께한 순례 중 체험을 통해 순례 중 실제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도록 배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레따 수녀님께서서는 형제회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입니다. 당신의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클라라와 아그네스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두 사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훨씬 큰 것입니다. 아시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신부님께서서는 “프란치스코는 상인과 장래 기사의 견해를 통해 영혼에 응답하였고, 클라라는 고귀한 여인과 귀부인의 견해 해 영혼에 응답하였습니다. 우리의 변화하는 시대가 우리에게도 그 같은 영혼을 갖도록 해줄 것입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관상과 그리스도의 한 없는 사랑과 자비의 묵상을 통해,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로 무한한 사랑을 실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의 밝은 빛이 이 21 세기를 비추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끌리도록 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진실로 이것이 영성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요구되는 영성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